

# 현대중국어 울타리어 聽說와 의문문 유형의 공기 제약 및 화용 기능\*

한 서 영\*\*

## <目次>

|                      |                          |
|----------------------|--------------------------|
| I. 서론                | V.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의<br>화용 기능 |
| II. 울타리어의 분류         | VI. 결론                   |
| III. 코퍼스 수집과 분석 기준   |                          |
| IV. 의문문 유형별 공기 양상 분석 |                          |

## I.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聽說’는 동사 외에도 삽입어(插入語/插說)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통적으로 서술된다.(呂叔湘 1999:531) ‘聽說’가 삽입어로 쓰일 때의 어순은 (1)의 문두나 (2)의 문중 모두 가능하다.(허성도 2007:420) 이때 삽입어 ‘聽說’의 의미 기능은 소식의 근원을 나타내는 것이다.(劉月華, 潘文娛, 故韡 2001:652)

- (1) **聽說**這個展覽會已經結束了。  
듣자니 이 전시회는 이미 끝났다.

\*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서 해주신 발전적인 조언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논문의 오류는 모두 저자의 단독 책임이다.

\*\*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2) 這個展覽會聽說已經結束了。

이 전시회는 듣자니 이미 끝났다.

그런데 삽입어 ‘聽說’는 (3)과 같은 의문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삽입어 ‘聽說’의 근본적인 기능이 소식의 근원을 나타낸다는 점은 이미 해당 소식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해당 소식에 대해 몰라서 물어보는 (3)의 의문문은 삽입어 ‘聽說’와 공기하기 어렵다.

(3) \*聽說這個展覽會已經結束了嗎？

\*듣자니 이 전시회는 이미 끝났나요?

다만 만약 ‘聽說’가 동사 서술어로 쓰일 경우, (4)와 같이 의문문에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4) 這個展覽會你聽說過嗎？

이 전시회 너 들어본 적 있어?

이를 통해 동사 서술어가 아닌 삽입어 ‘聽說’는 의문문과의 공기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째서 이러한 제약이 발생한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답을 하는 일은 ‘삽입어’라는 용어 자체에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삽입어는 서술어나 빈어 등에 비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며, 문장 내부의 주요 성분과 연결 관계를 갖지 않고, 심지어 생략되어도 비문을 만들지 않는다고 서술된다.(劉月華, 潘文娛, 故韡 2001:650) 이는 곧 ‘삽입어’라는 용어가 구조주의 통사적 관점에서 설정되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삽입어 ‘聽說’를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의 하나로 규정하여, 문장의 명제 진릿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정된 의미(conventional meaning)를 지녔다고 본 것과 같다.

한편 의사소통기능에 주목한 화용론적 관점에서 ‘聽說’는 다른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바로 ‘울타리어’<sup>1)</sup>(hedge/hedging, 模糊限制語)이다. 울타리어는 Lakoff(1972:195)에 의해 언어의 의미 논리에 대해 논할 때 도입된 용어로, ‘언어 표현을 더욱 모호하게(fuzzier) 만들거나, 덜 모호하게 만드는 어휘?’를 일컫는다. 이를테면 영어의 ‘sort of’, ‘strictly speaking’ 등이 해당한다. 이후 Fraser(1975, 1980)는 울타리어를 발화수반력 완화(mitigation)의 도구로 서술하였고, Prince, Bosk, Frader(1982)는 소극적 공손성(negative politeness)의 관점에서 울타리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용론적 관점에서 삽입어 ‘聽說’를 울타리어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동사 서술어가 아닌 ‘聽說’는 단순히 소식의 근원을 밝히는 고정 함축 외에도 맥락에 따라 상이한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어’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울타리어 ‘聽說’를 사용한 B의 동일한 발화가 서로 다른 대화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 비고정성을 갖게 되는지 보자.

- (5) A: 大家每年都參加展會嗎? 效果怎麼樣?  
 여러분들은 매년 엑스포에 참여하시나요? 효과는 어떤가요?  
 B: 聽說參展效果不如以前好了。  
 듣자 하니 엑스포 참여 효과가 예전만큼 좋진 않다고 하네요.
- (6) A: 我們公司也應該參加展會, 多花點錢買位置比較好的展位。  
 B: 聽說參展效果不如以前好了。  
 A: 우리 회사도 꼭 엑스포에 참여해야죠. 돈도 좀 많이 들어서 위치가 비교적 좋은 부스를 마련도 하고요.  
 B: 듣자 하니 엑스포 참여 효과가 예전만큼 좋진 않다고 하네요.

- 1) 한국 학계에서는 ‘울타리어’ 외에도 ‘헤지’(주로 영어영문학계), ‘울타리’, ‘울타리 표현’이라고도 번역된다. 이 용어는 원래 영어의 관용 표현인 ‘hedge one’s bets(손해를 보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다)’이라는 관용표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고재필 2017:20)
- 2) ‘words whose job is to make things fuzzier or less fuzzy’ (Lakoff 1972:195)

(5)의 대화에서 B의 발화는 표면 그대로 엑스포 참여 효과가 과거에 비하여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한편 (6)의 대화를 공손이론과 화행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A의 제안에 대하여 B는 간접화행의 방식으로 더욱 공손하게 거절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B는 발화행위(locutionary act)<sup>3)</sup>적 측면에서는 엑스포 참여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sup>4)</sup>의 측면에서는 A의 제안을 거절하여 대화함축을 생성한 것이다. 이로써 ‘還是別去了吧, 展位那麼貴, 機器來去運輸又麻煩。(아무래도 가지 말죠. 부스도 그렇게 비싸고, 기계 왔다 갔다 운송하는 것도 번거로운데)’와 같은 직접화행을 택하였을 때에 비해 더욱 공손하게 의사를 표현하였다. 또한 같은 간접화행이라 하더라도 울타리어 ‘聽說’가 없을 때보다 울타리어 ‘聽說’가 있을 때, 발화 책임을 감소 시킴으로써 모호성을 증가시켜 더욱 공손하게 느껴진다.

둘째, 동사 서술어가 아닌 ‘聽說’는 실제 통사적으로도 문장 내부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삽입어보다는 ‘울타리어’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삽입어는 통사적으로 내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모호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문문과 모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울타리어 ‘聽說’가 공기 가능한가의 문제를 살펴보면, 울타리어가 문장 내부에 끼치는 영향력이 잘 드러난다. 한국어 ‘개 이사 갔니?’와 ‘듣자니 개 이사 갔다며?’의 의미를 갖는 중국어 표현들을 비교해 보면서, 울타리어 ‘聽說’와 중국어의 의문문 형식이 아무 제약 없이 공기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7) 개 이사 갔니?

- a. 他搬家了?
- b. 他搬家了吧?
- c. 他搬家了嗎?

(8) 듣자니 개 이사 갔다며?

- a. 聽說他搬家了?
- b. (?) 聽說他搬家了吧?
- c. \* 聽說他搬家了嗎?

3) ‘언표행위’라고도 불린다.

4) ‘언표내적 행위’로도 불린다.

- |               |                            |
|---------------|----------------------------|
| d. 他搬家了沒有?    | d. *聽說他搬家了沒有?              |
| e. 他搬沒搬家?     | e. *聽說他搬沒搬家? <sup>5)</sup> |
| f. 他是不是搬家了?   | f. *聽說他是不是搬家了?             |
| g. 他搬家了, 是嗎?  | g. 聽說他搬家了, 是嗎?             |
| h. 他搬家了, 是吧?  | h. 聽說他搬家了, 是吧?             |
| i. 他搬家了, 是不是? | i. 聽說他搬家了, 是不是?            |

(7)의 ‘개 이사 갔니?’의 한국어 의문문은 중국어에서 판단의문문, 추측 의문문, 정반의문문, 부가의문문의 형식으로 전부 가능하다. 그러나 (7)의 소식을 남에게서 들었을 경우 이를 물어볼 때에는 (8)에서처럼 의문문의 형식에 따라 적형성에 각각 차이를 보이게 된다.

먼저 울타리어 ‘聽說’와 공기하는 추측의문문(測度疑問句) (8a)‘聽說他搬家了?’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동일한 추측의문문이라 해도 추측의 어기가 강해지는 조사 吧를 사용한 (8b)‘聽說他搬家了吧?’는 어색해지며, ‘聽說’가 더 이상 울타리어가 아니고 동사 서술어로 쓰여 다른 의미<sup>6)</sup>를 나타내는 것처럼 읽힌다. 그리하여 동사 서술어 ‘聽說’는 울타리어와는 달리 어기조사 吧를 쓴 강한 정도의 추측의문문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울타리어와 함께 쓰인 (8b)‘聽說他搬家了吧?(듣자니 개 이사 했다며?)’가 어색했던 것과 아래의 자연스러운 동빈 구조 (9)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 (9) 聽說他搬家的事吧?  
개가 이사한 일 들었지?

게다가 (8c)‘聽說他搬家了嗎?’처럼 의문조사 嗎를 사용하여 청자의 명

- 5) 특히 (8c), (8d), (8e)의 유형은 중국어 의문문의 여러 형식을 처음 배운 초급 학습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오류이기도 하다. 한국어 의문문을 중국어로 표현할 때에 중국어 의문문의 형식이 문맥에 상관없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 문이다.  
6) ‘개가 이사했다는 것 들었지?’

확한 답을 요구하는 판단의문문은 울타리어 ‘聽說’와는 공기 불가능하고, 역시 ‘聽說’가 동사 서술어인 것으로 해석되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리하여 만약 ‘聽說’가 울타리어가 아닌 동사 서술어로 쓰인다면, (8c) ‘聽說他搬家了嗎?’와는 달리 얼마든지 의문조사 嗎를 사용한 판단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 聽說他搬過家嗎?

개 이사한 적 있다는 것 들었어?

(11) 聽說他搬家的事嗎?

개가 이사한 일 들었어?

한편 정반의문문인 (8d) ‘聽說他搬家了沒有?’, (8e) ‘聽說他搬沒搬家?’ (8f) ‘聽說他是不是搬家了?’는 주어진 두 개의 선택항 가운데 하나만을 명확하게 고를 것을 요구하는 의문문인데, 이들 또한 울타리어 ‘聽說’와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러나 (12)과 같이 동사 서술어 ‘聽說’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정반의문문에서 쓰일 수도 있다. (8d), (8e), (8f)에서 삽입어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12) 聽沒聽說他搬家的事?

개가 이사한 일 들었어, 듣지 않았어?

그리고 (8g) ‘聽說他搬家了，是嗎?’, (8h) ‘聽說他搬家了，是吧?’, (8i) ‘聽說他搬家了，是不是?’와 같이 진술문 뒤에 是嗎, 是吧, 是不是를 첨가한 부가의문문은 청자에게 판단의문문보다 훨씬 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친절의문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은 모두 울타리어 ‘聽說’와 공기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8)에 제시된 여러 의문문 유형뿐만 아니라, 울타리어 ‘聽說’는 의문사가 쓰인 특수의문문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소식의 근원을 밝히는 ‘聽說’와 소식의 근원을 몰라서 물어보는 의문사는 본질적으로 의미 기능

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3)에서 ‘聽說’는 울타리어가 아닌 동사 서술어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13) 聽說他什麼時候搬家了?

\*듣자 하니 개 언제 이사했대?

개 언제 이사했는지 들었어?

이를 통하여 ‘聽說’가 동사 서술어로 사용된다면 의문사를 쓴 의문문과도 공기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4) 什麼時候聽說他搬家了?

개가 이사했는지 언제 들었어?

그러므로 동사 서술어가 아닌 울타리어 ‘聽說’는 공기 가능한 의문문 유형에 제약이 있으며, 고정함축 외에도 대화함축과 같은 특정 화용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聽說’가 삽입어라고 규정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에 기초해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삽입어’는 문장 내부 성분과 연결 관계가 없고, 삭제하여도 의미 전달이나 문장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서술될 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 이상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화용론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삽입어 ‘聽說’를 이제부터 ‘울타리어’로 놓고, 이것과 공기하는 의문문 유형 간의 제약과 화용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울타리어는 본질적으로 ‘모호성’의 각도에서 언어 현상을 다루는데, 위의 사례를 통해 중국어의 각 의문문 유형이 답하기를 요구하는 ‘모호성’의 정도와 화용 기능의 특징이 울타리어 ‘聽說’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울타리어를 분류하여 그 범주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코퍼스에서 울타리어 ‘聽說’가 나타난 현대중국어 의문문을 수집하고 분석

하여 해당 현상을 정량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그런 다음 중국어 울타리어와 의문문 유형과의 공기 제약을 밝히고, 이들의 의사소통에 작동되는 협력원리, 체면이론 및 화행의 기제를 탐구하려 한다.

## II. 울타리어의 분류

선행연구에서 울타리어의 범주를 분류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범주 분류 방식은 유사하나, 명칭과 하위 분류 체계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 1. 의미형 울타리어와 화용형 울타리어

첫째, 울타리어는 의미형 울타리어(語義型模糊限制語/명제 해지)와 화용형 울타리어(語用型模糊限制語/수행 해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高曉芳, 張琴(2002)와 노은주(2014)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의 서술을 본고에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울타리어의 범주 1

| 분류 | 의미형 울타리어<br>(語義型模糊限制語/명제 해지)                                   | 화용형 울타리어<br>(語用型模糊限制語/수행 해지)                                   |
|----|--|--|
| 예  | 'sort of', 'kind of', 'roughly',<br>'somewhat', 'relatively' 등 | 'I guess', 'to cut a long story<br>short', 'by the way' 등      |
| 연구 | Lakoff(1973)   | Fraser(1975, 1980), Prince, Bosk,<br>Frader(1982), Itani(1996) |
| 특징 | 단어 의미 자체에 '모호성'이 내재됨. 묘사되는 사물이 원형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점 표현.              | 의사소통전략으로 사용. 발화자가 대화 속 정보에 대해 갖는 신뢰도/구체성의 태도, 협력원리와 관련.        |

高曉芳, 張琴(2002); 노은주(2014) 참조.

이때 의미형 울타리어를 다룬 Lakoff(1973)는 명제 진리치에 영향을 주는 언어 표현을 울타리어로 규정하였다. Lakoff(1973:471)가 제시한 아래의 예를 보면, 울타리어가 각 문장의 주어가 새(bird)라는 각 명제의 진릿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15) a. A robin is sort of a bird. (거짓)
- b. A chicken is sort of a bird. (참, 혹은 참에 가까움)
- c. A penguin is sort of a bird. (참, 혹은 참에 가까움)
- d. A bat is sort of a bird. (거짓에 꽤 가까움)
- e. A cow is sort of a bird. (거짓)

(15a)에서 robin(울새?)은 아주 전형적인 새이기 때문에 ‘A robin is a bird’라는 명제는 아주 확실하게 진리이지만, 울타리어 ‘sort of’가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명제의 값은 거짓이 되고 말았다. 한편, (15b), (15c)는 닭이나 펭귄처럼 전형적인 새는 아닌 것들이 새라는 명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모호한 유사 진릿값을 지닌 명제가 울타리어 ‘sort of’와 공기할 경우, 결과적으로 진릿값을 도리어 확실하게 ‘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15d), (15e)처럼 울타리어가 없을 때에도 거짓인 명제는 울타리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참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한편 화용형 울타리어를 다룬 Prince, Bosk, Frader(1982)는 울타리어가 문장 명제의 의미 자체보다는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대부분 화자의 확신 정도가 강하지 않을 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Itani(1996) 역시 화자의 약한 확신의 정도가 의사소통환경에서 전달되는 경우를 울타리어의 경우로 보았다.

7) 개똥지빠귀와 유사한 새로, 전체적으로 갈색에 가슴팍은 붉고, 크기는 참새처럼 작다.

## 2. 방패어와 근사어

둘째, 울타리어는 방패어(Shield, 緩和型/遮掩語)와 근사어(Approximator, 變動型/近似語)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은 Prince, Bosk, Frader(1982)를 따른 것이며, 근사어는 명제의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고, 방패어는 명제의 진리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한다. Prince, Bosk, Frader(1982)가 제시한 아래의 예를 보면, (16b)의 근사어 ‘sort of’는 ‘그의 발이 푸르다’는 명제의 내용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6c)의 방패어 ‘I think’는 ‘그의 발이 푸르다’는 명제의 진리 자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 (16) a. His feet were blue.  
 b. His feet were sort of blue. (근사어)  
 c. I think his feet were blue. (방패어)

더 구체적으로 Prince, Bosk, Frader(1982)은 근사어를 적용어(Adapter, 程道變動詞)와 대략어(Rounder, 範圍變動詞)로 하위분류하였으며, 방패어를 개연성방패어(plausibility shields, 直接緩和詞)와 귀속방패어(attribution shields, 間接緩和詞)로 나누었다. 이에 대한 중국어 번역어와 사례는 周瑞琪(2001:14), 董娜(2003:29)를 참고하고, 한국어 번역어는 주지연(2015)와 고재필(2017)을 참고하여 본고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현재 방식을 따라 울타리어 ‘聽說’를 귀속방패어로 놓고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울타리어의 범주 2

| 분류                             |  | 중국어 예   |   |
|--------------------------------|--|---|---|
| 울타리어<br>(Hedges,<br>模糊<br>限制語) | 방패어<br>(shields,<br>緩和型/<br>遮掩語)           | 개연성방패어<br>(plausibility<br>shields,<br>直接緩和詞) | 我認爲, 我相信, 要是我沒記錯的話, 就我所知, 恐怕…, 不知道…, 你能不能…, 似乎…, 好象               |
|                                |  | 귀속방패어<br>(attribution<br>shields,<br>間接緩和詞)   | 據說, 假設…, 眾所周知, 某某人說, 也可能是這樣, 有…可能性, 可以這麼說                         |
|                                | 근사어<br>(approxim<br>ators,<br>變動型/<br>近似語) | 적용어<br>(adaptors,<br>程道變動詞)                   | 有點…, 在某種程度上, 在某種意義上, 在某些方面, 總的來說, 實際上, 多少, 簡潔地說, 一句話              |
|                                |  | 대략어<br>(rounders,<br>範圍變動詞)                   | 幾乎, 大約, 大概, 大體, 差不多, 粗略地, 超過, 不足, 不到, 只是, 介於…和…之間, 不外乎, 基本上, 不怎麼… |

Prince, Bosk, Frader(1982), 周瑞琪(2001), 董娜 (2003), 주지연(2015), 고재필(2017) 참조.

### III. 코퍼스 수집과 분석 기준

聽說와 의문문 형식 사이의 공기 제약을 알아보기 위하여,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에서 제공하는 현대중국어 CCL 코퍼스에서 말뭉치를 수집하였다. 이때 聽說와 물음표 사이에는 최대 15글자까지 오는 모든 표현을 수집하기 위하여 정규식 ‘聽說\$15?’을 써서 검색하였다. 그 결과 CCL에서 총 1065개의 예문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聽說와 물음표 사이에 15개의 글자가 오는 표현 총 1065개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시대적으로 중국 당대(1950년 이후)의 코퍼스만을 균질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중국 현대(1919~1949년)에 해당하는 48개의 코퍼스는 제외하였다. 또한 출처가 당대로 표기된 자료라 할지라도, 시대적 배경이 전통 시기이며 문어투가 많은 사극 드라마<sup>8)</sup> 대사 30개 또한 제외하였다.

둘째, 지역 방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콩 작가 문학 작품 코퍼스 50개와 대만 작가의 문학 작품을 출처로 하는 코퍼스 19개, 도합 69개를 제외하였다.

셋째, 번역 작품을 출처로 갖는 코퍼스 216개 또한 제외하였다. 외국어 전이, 번역투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제1언어 발화만을 균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넷째, 구어/문어 자료 출처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였다. 구어 자료에 비하여 문학 작품을 출처로 하는 문어 자료가 과도하게 많았는데, 이를 취사선택하여 구어와 문어가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선택된 코퍼스에서 통사적으로 연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96개의 사례까지 제외하였다. 이를테면 聽說가 의문문과 공기하지 않는 예문<sup>9)</sup>, 聽說가 동사 서술어로 쓰인 예문<sup>10)</sup>, 聽說가 해당 문장의 목적어구에서 관형어로 쓰인 예문<sup>11)</sup>, 聽說讀寫, 打聽說와 같이 聽說가 아닌 다른 단어의 연쇄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상술한 정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울타리어 聽說와 의문문이 공기한 예문만을 수집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더니, 총 313개(울타리어 121개, 동사 서술어 192개)의 코퍼스가 본고의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현들의 의문문 유형은 일반 의문문과 반문 의문문으로 크게 나눌

8) 사극 드라마 大宋提刑官, 孫子兵法與三十六計, 九品芝麻官, 唐伯虎點秋香의 대사들.

9) 예를 들면 ‘我聽說您還上網, 您怎麼上網呢?’와 같은 사례.

10) 예를 들면 “你都聽說啦?”, 혹은 ‘沒聽說過。(到北京幾代了?)’와 같은 사례. 다만 공기하는 의문문 유형을 비교할 때에는 울타리어를 실험군으로 동사 서술어를 대조군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11) 예를 들면 這是我之前聽說的那個西方資本主義社會嗎?와 같은 예문.

수 있었다. 12) 먼저 일반 의문문에 대하여서는 劉月華, 潘文娛, 故韡 (2001:785-794)를 분석 기준으로 삼고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3〉 일반 의문문의 분석 기준

| 종류                       | 사용 형식                 | 특징                                | 예           |
|--------------------------|-----------------------|-----------------------------------|-------------|
| 1. 판단 의문문 (是非問句)         | 어기조사 嗎 <sup>13)</sup> | -                                 | 王老師回來嗎?     |
|                          | 부가성분 <sup>14)</sup>   | 화자가 자신의 의견/추측/요구 제기한 후 상대방 의견을 구함 | 你是日本人, 對嗎?  |
|                          | 상승 억양                 | 놀라움, 의심스러움                        | 小張沒來?       |
|                          | 어기조사 吧                | 추측, 탐문                            | 老張不來了吧?     |
| 2. 특지 의문문 <sup>15)</sup> | 일반 의문사                | -                                 | 他在哪兒?       |
|                          | 어기조사 呢                | -                                 | 你的靴子呢?      |
| 3. 정반 의문문                | 일반 정반의문문              | 질문자는 대답에 대해 미리 예상하지 않음            | 這種錄音機好不好?   |
|                          | 是不是 <sup>16)</sup>    | 문두/문중/문말 위치                       | 你是不是明天動身?   |
|                          | 好不好, 成不成              | 문말에만 위치                           | 我們下午去, 好不好? |
| 4. 선택 의문문                | ~(是), ~還是             | -                                 | 是你去, 還是他去?  |

劉月華, 潘文娛, 故韡 2001:785-794 참조.

다음으로 반문 의문문의 경우는 劉月華, 潘文娛, 故韡(2001:785-794)를 분석 기준으로 따른 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코딩하였다.

12) 劉月華, 潘文娛, 故韡(2001)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일반 의문문과 반문 의문문을 제외하고 回聲問句까지 논하였으나, 回聲問句는 워낙 특수한 경우로 본고의 코퍼스에서는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13) 어기조사 麼도 같은 부류로 분류함.

14) 이윤경(2018:82), 이범열(2019:156)에 따라 X不X, X嗎, 不X嗎, 不X吧의 형식으로 쓰인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음. 嗎 대신 麼가 쓰인 예도 포함.

15) 한국어 번역어로 '의문사 의문문'이 사용되기도 한다.

16) 是否도 같은 부류로 포함시킴.

〈표 4〉 반문 의문문의 분석 기준

| 종류        | 사용 형식              | 특징                       | 예                   |
|-----------|--------------------|--------------------------|---------------------|
| 1. 판단의 문문 | 여기조사 嗎17)          | 일반 의문문에 반문<br>여기 추가      | 還想進去去看電影? 你有票嗎? 18) |
|           | 不是~嗎19)            | 분명한 사실 강조                | 你不是去過那個地方嗎?         |
|           | 沒~嗎                | 사실이 이미 그러함을<br>강조, 불만/책망 | 我沒告訴你嗎?             |
|           | (難道)~(不成)          | 반박 용인 X, 그럴 리<br>없다는 의미  | 難道她沒看見?             |
|           | 부사 還               | 不應該의 의미                  | 你還不滿意?              |
|           | 상승 억양              | -                        | 這是你的?               |
| 2. 특지의 문문 | 일반 의문사             | 반문 여기 추가                 | 這樣的好事爲什麼不做?         |
|           | 서술어에 哪裏, 哪兒, 怎麼    | 장소나 방식 묻는<br>것이 아님       | 這篇文章哪兒難阿?           |
|           | 不~, 의문사~           | -                        | 他不管我, 誰管我呢?         |
|           | 형용사/(심리)동사+什麼      | 반대, 반박 여기,<br>불필요        | 那件襯衫好什麼? / 哭什麼?     |
|           | 有什麼20)(+VP/AP)     | -                        | 這件事有什麼難辦?           |
|           | 幹什麼/幹嗎/做什麼         | -                        | 送禮幹什麼?              |
|           | 誰說/誰說的~            | -                        | 誰說我們幹不成?            |
|           | 何必/何況21)           | -                        | 何必看那些注釋呢?           |
| 3. 정반의 문문 | 你看/你說/你想+<br>정반의문문 | -                        | 你看看這個人厲害不厲害?        |
|           | 부사 還               | -                        | 你還想或不想活?            |
|           | 是不是                | 문두, 문말(문중X)              | 是不是? 我沒猜錯吧。         |

17) 여기조사 麼도 같은 부류로 분류함. 원문에서는 일반 의문문-판단 의문문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예문은 모두 여기조사 嗎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역하여 사용함.

18) 你有票嗎? 만 해당.

19) 不是~嘛도 포함시킴.

| 종류              | 사용 형식     | 특징                                | 예                   |
|-----------------|-----------|-----------------------------------|---------------------|
| 4.<br>선택의<br>문문 | ~(是), ~還是 | 제시되는 선택 모두 부정하는 것이 화자의 의도         | 我跟你是親戚，是老朋友，還是我欠你的？ |
|                 |           | 상반되는 상황 제시하는데 선행하는 상황만 화자의 의도에 해당 | 他是想解決問題呀，還是想打架呀？    |

劉月華, 潘文娛, 故韓 2001:794-803 참조.

상술한 코퍼스 수집 단계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EmEditor Professional (version 20.0.3)이었으며,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Microsoft사의 Excel 2016과 통계 프로그램인 SPSS(version 20.0)를 이용하였다.

#### IV. 의문문 유형별 공기 양상 분석

##### 1. 공기 양상 개괄

총 313개의 분석 대상을 놓고, 聽說의 범주(울타리어, 동사 서술어)에 따라 공기하는 의문문 유형을 분석한 전체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聽說의 문장 성분에 따라 일반 의문문, 반문 의문문과 공기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지 검정하였다. 이때 반문 의문문에 사용된 울타리어의 셀이 2로 기대빈도가 5보다 작기 때문에,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였다. 검정 결과, 정확한 유의확률(양측검정)값이 0.001로  $p < 0.01$ 이었으므로( $\chi^2 = 10.080$ ), 聽說가

20) 有啥도 같은 부류로 분류함.

21) 何嘗, 何妨, 何不, 何苦, 何至於, 豈도 같은 부류로 분류함.

울타리어인지 동사 서술어인지에 따라 공기하는 의문문 유형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울타리어 聽說는 오직 판단의문문과만 공기하지만, 동사 서술어 聽說는 모든 의문문 유형과 공기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울타리어는 전체 121개 사례에서 100% 전부 판단의문문과만 공기하였으며, 특지의문문이나 정반의문문과는 전혀 공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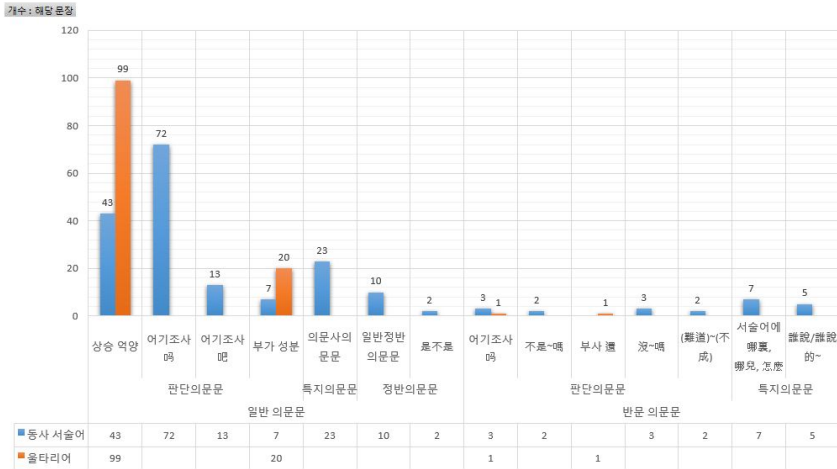


이때 반문 의문문은 소수이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 의문문에서 聽說가 공기 가능한 의문문 형식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특지의문문과 선택의문문은 ‘비판단의문문’으로 묶어서 코딩하였다. 또한 비판단의문문에 사용된 울타리어의 셸이 0으로 기대빈도가 5보다 작기 때문에,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검정 결과, 정확한 유의확률(양측검정)값이 0.000로  $p < 0.01$ 이었으므로 ( $\chi^2=34.853$ ), 聽說가 울타리어인지 동사 서술어인지에 따라 판단의문문과의 공기 여부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장성분 \* 의문문형식\_판단비판단 교차표

|      |        |          | 의문문형식_판단비판단 |         | 전체     |
|------|--------|----------|-------------|---------|--------|
|      |        |          | 판단 의문문      | 비판단 의문문 |        |
| 문장성분 | 동사 서술어 | 빈도       | 145         | 47      | 192    |
|      |        | 기대빈도     | 163.2       | 28.8    | 192.0  |
|      |        | 문장성분 중 % | 75.5%       | 24.5%   | 100.0% |
| 울타리어 | 빈도     | 빈도       | 121         | 0       | 121    |
|      |        | 기대빈도     | 102.8       | 18.2    | 121.0  |
|      |        | 문장성분 중 % | 100.0%      | 0.0%    | 100.0% |
| 전체   | 빈도     | 빈도       | 266         | 47      | 313    |
|      |        | 기대빈도     | 266.0       | 47.0    | 313.0  |
|      |        | 문장성분 중 % | 85.0%       | 15.0%   | 100.0% |

셋째, 일반 의문문에서 울타리어 聽說는 오직 상승 억양과 부가성분의 형식으로 실현되는 판단의문문과만 공기 가능했으나, 동사 서술어 聽說는 모든 형식과 공기 가능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또한 동사 서술어 聽說는 어기조사 嗎를 사용하는 의문문 형식으로 가장 많이 실현되었으나(72개, 37.5%), 울타리어 聽說는 유독 상승억양으로 실현되는 의문문 형식과 특히 많이 공기하였다. (99개, 82.82%) 이는 聽說의 성분 및 기능에 따라 공기하는 기본적인 의문문 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기 경향 또한 울타리어의 경우 더욱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제부터 聽說와 공기는 일반 의문문 각 형식을 범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반문 의문문의 사례를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만 선택의문문은 분석 기준에서는 존재하였으나 실제 코퍼스에서 나타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판단의문문

### 1) 상승 억양 판단의문문

울타리어 聽說는 무엇보다도 상승 억양으로 실현되는 판단의문문으로 거의 대부분(99개, 82.82%) 실현되었다는 큰 특징을 보였다. 의문사나 의문을 나타내는 문말 어기조사 등 형태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의문문의 표지들과는 결합하지 않고, 오직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의문 표지인 오름조의 억양으로만 의문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 (17) 울타리어 聽說-상승 억양 판단의문문 사례

- a. 問：你太矛盾了吧？聽說你是且戰且救人的？<sup>22)</sup>

질문: 선생님 너무 모순적이지 않으신가요? 듣자니 전쟁에서 싸우면서 동시에 사람도 구하셨다면서요?

b. 聽說您的車在鬧毛病?<sup>23)</sup>

듣자 하니 당신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서요?

언어유형론적으로 陳妹金(1993:28)는 상승 억양으로 의문문을 실현시키는 것은 인류 언어의 보편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Ultan(1969) 또한 인류 언어의 약 95% 정도가 오름조의 억양으로 의문문을 실현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울타리어가 상승 억양 판정 의문문과 공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언어 보편성을 떠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어기조사 嗎와 어기조사 吧 판단의문문

聽說가 동사 서술어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어기조사 嗎가 쓰인 판단의문문과 가장 빈번하게 공기하였으며(72회, 37.5%), 어기조사 吧가 쓰인 판단의문문과도 적지 않게 공기하였다(13회, 6.77%). 그러나 울타리어 聽說是 일반 의문문의 경우, 그 어떤 어기조사가 쓰인 판단의문문과도 공기하지 않았다. (0회, 0%) 따라서 울타리어 聽說是 어기조사 판단의문문과 공기 제약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聽說가 동사 서술어이든 울타리어든 간에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어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외의 측면에서 비롯된 차이점이 울타리어 聽說가 어기조사가 쓰인 판단의문문과의 공기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을 추측하게 한다<sup>24)</sup>.

## 3) 부가성분 판단의문문

울타리어 聽說가 두 번째로 빈번하게 공기한 의문문 형식은 부가성분을

22) CCL 【文件名:W當代W口語W對話W李敖對話錄.txt】

23) CCL 【文件名:W當代W報刊W讀者W讀者(合訂本).txt】

24) 현상 기술은 이번 장에서 하고, 이론적 논의는 다음 장에서 진행한다.

동반한 판단의문문이었다. (20회, 16.53%) 다른 형식의 의문문에서는 전부 동사 서술어 聽說와 공기하는 횟수가 울타리어 聽說와 공기하는 횟수보다 많았으나, 부가성분 판단의문문과 상승억양 판단의문문에서만은 울타리어 聽說와 공기하는 횟수가 동사 서술어를 초과하였다.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부가성분 판단의문문은 사실상 평서문을 발화하고 그 후에 간단한 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평서문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그리고 상승억양으로 실현되는 판단의문문 또한 음성 외적으로는 평서문과 차이점을 갖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가성분 판단의문문처럼 평서문과 교집합인 부분이 많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8) 울타리어 聽說-부가성분 판단의문문 사례

a. “聽說你是從安徽合肥到北京的，是嗎？”<sup>25)</sup>

“듣자니 당신은 안휘성 합비에서 북경으로 오셨다는데, 그런가요?”

b. “主席，聽說你不喜歡看話劇，是不是啊？”<sup>26)</sup>

“주석님, 듣자 하니 당신께선 연극 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데, 그러신가요?”

### 3. 특지의문문과 정반의문문

의문사의문문으로 실현되는 특지의문문의 경우, 동사 서술어 聽說와는 23회(11.98%) 공기하였으나, 울타리어 聽說와는 전혀 공기하지 않았다(0회, 0%). 한편 정반의문문의 경우, 동사 서술어 聽說와는 12회(6.25%) 공기하였으나, 울타리어 聽說와는 단 한 차례도 공기하지 않았다(0회, 0%). 이때 동사 서술어 聽說是 일반정반의문문, 혹은 是不是 형식의 정반의문문과 모두 공기하였다.

25) CCL 【文件名:W當代W報刊W作家文摘W1994W1994A.TXT 文章標題:成名之前的孫國慶 作者:肖蘭】

26) CCL 【文件名:W當代W報刊W人民日報W1994年人民日報W第1季度.txt】

#### 4. 예외적 경우 - 반문 의문문

수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반문 의문문의 경우, 울타리어 聽說가 특지의 문문이나 선택의문문이 아닌 판단의문문과만 공기한다는 점은 일반 의문문의 분포 상황과 같았다. 그러나 판단의문문의 세부적 형식에서 일반 의문문과 차이점을 보였다.

첫째, 어기조사 嗎가 쓰인 반문 의문문과 극소수인 1회 공기하였다. 그런데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이 의문문은 형식만 의문문일 뿐 의미적으로는 당신이 분명히 모직 공장 전기 기술자로 일했었다는 정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의문문의 어기조사 嗎 의문문과는 달리 사실상 평서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관점에서 이는 일종의 평서문 앞에 울타리어 聽說가 쓰인 것과 오히려 더 가깝다.

(19) 記者問：“聽說你不是在鄉辦毛織廠當電工嗎？”<sup>27)</sup>

기자가 질문하였다. “듣자 하니 당신은 시골에서 모직 공장 전기 기술자로 일한 거 아녜나요?” (분명히 일했다)

둘째, 부사 還가 쓰인 판단의문문인 반문 의문문과 1회 공기하였다. 사실 이 경우는 형식적 측면에서 상승 억양을 쓴 일반 판단 의문문과 달리 볼 점이 없다. 일반 의문문에서 상승 억양을 쓴 형식에 주로 공기하였던 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0) “怎麼，聽說你還在說‘勝敗乃兵家之常事’？”<sup>28)</sup>

어, 듣자니 너 아직도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27) CCL 【文件名:W當代W報刊W1994年報刊精選W05.txt】

28) CCL 【文件名:W當代W報刊W1994年報刊精選W12.txt】

## V.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의 화용 기능

울타리어 聽說와 의문문이 공기하는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은 어째서 특정 형식만이 가능한 것일까? 울타리어와 의미적으로 그다지 다르지 않은 동사 서술어는 공기 가능한 의문문의 형식에 제약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울타리어의 분포는 상당히 편향적이다. 이는 곧 울타리어 聽說가 내부 문장의 구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런데 기존의 구조주의 통사적 관점이나 비슷한 의미항에 바탕을 두는 의미론적 접근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앞의 장에 나타난 이러한 공기 결과에 대한 원인을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의 특수한 화용론적 기능을 탐색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 1. 간접 화행의 발화수반력 약화와 암시적 표현의 체면 보호

울타리어 聽說가 사용된 표현들은 질문문-명령 화행으로 자주 사용되었다는 측면에서 간접 화행에 특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소식의 근원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소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라는 명령/지시행위(directive, Searle 1979)를 명령문이 아닌 의문문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1) 魯豫：聽說後來您說過一句話？

루위：듣자니 나중에 한 마디 하셨지요?

史光柱：英雄，對國家而言，它有喜劇色彩，因為有英雄的存在，有英雄群體的存在，才有那種民族的脊梁和民族的精神；但與此同時作為個人來說，英雄是悲劇性的，不管是對古代還是現代的個人而言都帶著濃厚的悲劇色彩。這一仗打下來我眼睛失明了，父親去世了，母親也瘋了，我們家一仗牽進去三個人。還有我弟弟，當時非常小。其實當年支撐我活下去的理由有兩點：(중략).....

스광주: 영웅은 국가적 측면에서는 기쁜 일입니다. 영웅 한 명이 있기에, 또한 여러 명의 영웅이 있기에, 민족의 대들보와 민족의 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측면에 있어서 영웅은 비극입니다. 고대의 개인이든 현대의 개인이든 아주 짙은 비극의 색채를 띠죠.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전 시력을 잃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정신을 놓으셨습니다. 이 한 전투에 우리 가족 세 사람이 연루되었던 거죠. 그리고 내 남동생은 그때 아직 정말 어렸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억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중략)

위의 예문을 보면, TV 토크쇼 ‘魯豫有約’의 인터뷰에서 사회자 魯豫는 ‘聽說後來您說過一句話?’라고 묻는다. 만약 이 말이 단순히 일반의문문-판단의문문의 기본적인 정보 확인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대답으로는 그저 ‘嗯, 說過’나 ‘沒有啊’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답자 史光柱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소식의 확인은 해주지도 않은 채,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아주 길게 풀어나가고 있다. 즉, (21)의 발화행위는 ‘나중에 한 마디 말을 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발화수반행위는 ‘한 마디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지시/명령이었기 때문에, 발화결과행위로 청자는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21)에서 史光柱의 이야기를 보면 매우 슬프고 비참하다. 자신은 시력을 잃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어머니는 정신을 놓으셨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입 밖에 꺼내놓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史光柱가 불쾌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이유는 魯豫가 간접 화행으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켜 공손성을 실현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Brown & Levinson(1987)은 공손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체면위협 행위(FTA: Face Threatening Acts)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래와 전략들을 시행하여 공손성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이때 (22)에서 체면 보호의 정도는  $a < b < c < d$ 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암시적 표현은 비언어적 제스처

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Leech(1983:108)는 발화수반행위가 간접적일수록 발화수반력은 줄어든다고 하였기 때문에, 발화수반력은 a > b > c > d로 정리할 수 있겠다.

(22) Brown & Levinson(1987)의 체면 보호 정도와 중국어 예(본고)

- a. 노골적 발화(bald on record)  
說你自己的故事!  
네 이야기를 말해라!
- b. 적극적 공손 표현(positive politeness)  
請您說一下您自己的故事。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 c. 소극적 공손 표현(negative politeness)  
麻煩您能不能說一下您自己的故事?  
실례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d. 암시적 표현(off record)  
聽說您有您自己的故事?  
자신의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21)의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은 여기에서 암시적 표현에 속한다. Brown & Levinson(1987)에 따르면 암시적 표현은 청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청자에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선한 인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보면, (21)에서 사회자는 어떤 한 마디를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는 말만 하고, 그 관련 이야기를 해달라고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청자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곧 발화수반력을 매우 약화시킨 것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Sadock(1974)은 영어 Can you VP?, Will you VP? Would you VP? 등의 의문문들을 ‘의문명령문(whimperatives)’이라고 칭하며 일종의 간접 화행 속어(idioms)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 중국어에서 울타리어 聽說是 상승 억양이나 부가성분으로 실현되는 판단의문문과 공기하여 일종의 관습화(conventionalized)된 표현으로 공손성을 나타내고 있

다고 하겠다. 임소정(2015)에서도 중국어의 관습화된 간접 화행 표현들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다만 영어 Can you VP?, Will you VP? Would you VP? 는 소극적 공손 표현이며, 중국어 울타리어 聽說-판단의문문은 암시적 표현이므로, 울타리어 聽說-판단의문문이 더욱 높은 정도의 공손성을 표현하고 체면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서 울타리어 聽說-판단의문문은 간접 화행의 속어이기 때문에 기존 삽입어의 설명처럼 삭제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속어적 특성은 특정 결합 패턴이 강하게 선호되는 경향도 설명해줄 수 있다. 왜 울타리어 聽說가 특정 의문문의 형식과만 결합 가능한지에 대한 화용론적 기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2. 완화를 위한 화시 중심 이동과 협력원리 위반

울타리어 聽說是 의사소통에 작용하는 여러 화용 원리들 가운데 협력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Grice 1975) 중 양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을 위반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李櫻(2012/2019:136-139)은 이러한 측면에서 울타리어의 원리 위반 예고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 (23) Grice(1975)의 협력원리

- a.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제공하라
- b. 질의 격률: 진실된 정보만 제공하라
- c. 관련성 격률: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라
- d. 태도의 격률: 간결명료한 태도를 지녀라

울타리어 聽說가 쓰인 아래의 예문을 보면, 우선 (24)의 경우 상대방이 세 놓을 집이 있냐고만 물어보면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충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화자가 어디에선가 그 정보를 들었다는 점을 말하며 울타리어 聽說를 사용하는 것은 잉여적이기 때문에 양

의 격률을 위반하게 된다. (25)의 예문은 이러한 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데, 쉐잉은 상대방이 오늘 결혼한다는 명제에 대해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잉여적으로 이 명제를 재확인하고자 하며, 굳이 그걸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는 말을 더 첨가하였다. 간단히 ‘너 오늘 결혼하니?’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

(24) “聽說你有房子要出租?”<sup>29)</sup>

듣자니 세 놓을 집이 있으시다면서요?

(25) 雪瑛什麼都明白了, 冷冷地抖著唇問: “聽說你今天成親?”<sup>30)</sup>

설영은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차갑게 입술을 떨며 물었다. “듣자니 너 오늘 결혼한다며?”

또한 (24)과 (25) 모두 직설적으로 세 놓을 집이 있는지, 오늘 결혼하는지만 묻지 않는다. 질문을 매우 조심스레 던지고 있는데, 이는 해당 명제 소식의 근원을 다른 곳에 위치시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애매하게 만들고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상기의 예문들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면 협력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자가 대화를 유지하려는 협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협력 원리를 위배하고 공손성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울타리어 聽說를 사용하는 것으로 화자는 화시 중심을 자신에게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완화 전략을 펼쳐, ‘나는 사실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지만 상대방과 싸우거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싶지 않고, 공손하게 말하고 싶다’는 숨겨진 대화 함축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25)의 경우 화자인 설영은 상대방이 오늘 결혼하는 것이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지만, 차마 청자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한 화자의 조심스러운

29) CCL 【文件名:W當代W報刊W故事會W故事會2005.txt】

30) CCL 【文件名:W當代W電視電影W文藝W喬家大院.txt】

태도는 '차갑게 입술을 떨며 묻는' 묘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高曉芳, 張琴(2002)는 울타리어가 공손원리를 준수하고, 갈등을 피하며, 객관성을 높이는 데에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본고에서도 역시 동일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Fraser(1980:342)는 이러한 완화를 청자에게 미치는 효과 가운데 원하지 않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전략이라고 말하였고, Caffi(1999:882)는 완화를 '상호작용의 매개변인 가운데 하나를 약화시킨 결과'라고 말하였다. 울타리어 聽說는 예상되는 갈등을 약화시키는 형태통사적 완화 장치로 쓰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완화는 화자를 보호해주기도 한다. 울타리어 聽說를 사용하면 명제의 정보를 타자화시킴으로써 화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발화자인 나를 배경화시키기 때문이다. 고재필(2017:148)은 이에 대해 '책임은 원발화의 화자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王玲(2016:9)은 이에 대해 일종의 자아 보호 전략이라고 풀이하였다. 董娜(2003:33)와 周紅·錢紀芳(2008:27)는 이러한 현상을 '作者缺席(absence of writer)'의 효과라고 지칭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어 울타리어 according to, it is said that……, somebody says, it seems…… 등의 예를 들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은 근본적으로 협력 원리를 준수하는 명확한 의문문 형식과는 화용 기능적 측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갈등을 피하고 화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의 완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완화의 기제를 상쇄시키는 특정 의문문과는 공기하지 않게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 3. 의문문 유형과 의문 정도

울타리어 聽說가 상승 억양 판단의문문 아니면 부가성분 판단의문문과만 공기하는 데에는 의문문 유형 자체가 갖는 의문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상술한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지 않는 형식과 공기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徐傑·張林林(1985), 邵敬敏(1996)

은 중국어 의문문을 의문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이들의 분류에 더해 울타리어 聽說 공기 여부를 본고에서 함께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의문문 형식에 따른 의문 정도와 울타리어 聽說와의 공기

| 의문문 형식           | 의문<br>정도    | 徐傑·張林林<br>(1985) | 邵敬敏<br>(1996) | 울타리어<br>聽說와 공기 |
|------------------|-------------|------------------|---------------|----------------|
| 특지 의문문           | 고<br>↓<br>저 | 100              | 1             | ×              |
| 판단 의문문<br>-어기조사嗎 |             | 80               | 3/4           | ×              |
| 정반 의문문           |             | 80               | 1/2           | ×              |
| 선택 의문문           |             | 60               | 1/2           | ×              |
| 판단 의문문<br>-어기조사吧 |             | 40               | 1/4           | ×              |
| 판단 의문문<br>-부가성분  |             | 40               | -             | ○              |
| 판단 의문문<br>-상승역양  |             | 40               | -             | ○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울타리어 聽說是 의문의 정도가 낮은 의문문 과만 공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徐傑·張林林(1985:79) 자신 들이 의문 정도가 낮을수록 가능한 형식이 더 많아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울타리어 聽說을 일종의 지표로 삼아 기존 연구의 의문 정도에 대하여 더욱 세밀한 재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 동일한 정도의 의문 정도를 갖는다고 분류되었던 형식들도 더욱 세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徐傑·張林林(1985)에서 의문 정도 40으로 가장 의문의 정도가 낮은 범주라고 분류된 어기조사 吧를 사용한 판단 의문은 울타리어와 결합할 수 없었지만, 동일한 의문 정도 40의 수치를 보이는 부가성분 판단 의문문이나 상승역양 판단 의문문은 울타리어와 결합 가능하였다. 그리고 울타리어 聽說是 부가성분 판단 의문문보다

는 상승억양 판단 의문문과 더 많이 결합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자도 동일한 의문 정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邵敬敏(2013:4)은 상승억양을 이용한 판단 의문문이 상대방에게 대답을 진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발화자의 심리, 정서,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데에 주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그는 어기조사를 사용하는 판단 의문문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상황에 사용되므로 진짜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울타리어 聽說는 가장 의문의 정도가 낮은 상승억양 판단 의문문과 가장 많이 공기하여,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해진다. 또한 울타리어 聽說는 모호성을 증폭시키는데, 이때 모호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할 때에 생기는 태도이다. 아무것도 모르면 모호할 수도 없다. 그런데 전혀 모를 때 물어보려면 문말어기조사 판정 의문문이 쓰이기 때문에 울타리어와는 공기 불가능한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울타리어 聽說과의 공기 가능성을 지표로 삼아 의문문 유형의 의문 정도를 본고에서 재정비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울타리어와의 공기를 지표로 재정비된 의문 정도

| 의문문 형식       | 의문 정도 | 울타리어 聽說와 공기 |
|--------------|-------|-------------|
| 특지 의문문       | 100   | ×           |
| 판단 의문문-어기조사嗎 | 80    | ×           |
| 정반 의문문       | 80    | ×           |
| 선택 의문문       | 60    | ×           |
| 판단 의문문-어기조사吧 | 40    | ×           |
| 판단 의문문-부가성분  | 20    | ○           |
| 판단 의문문-상승억양  | 5     | ○(절대 다수)    |

## 4. 화제 제시와 담화 전개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은 화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새로운 담화를 시작하고, 청자로 하여금 담화를 전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후티엔청은 동 교수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서, 떠나는 일에 대하여 담화를 전개할 것을 요청하고 발화순번을 교체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동 교수가 떠난다 혹은 떠나지 않는다는 대답 외에도 떠나는 것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담화로 구성하여 발화하였다.

- (26) 呼天成匆匆來到了老董的試驗室。呼天成看了他一眼，說：“老董，**聽說**你要走？”董教授不好意思地說：“老呼，我沒給你搞成，我走吧。反正到現在，我還沒拿呼家堡一分錢，這些天，就算我自盡義務了。”<sup>31)</sup>

후티엔은 서둘러 라오둥의 실험실로 갔다. 후티엔은 그를 훔쳐 보고는 말했다. “라오둥, 듣자니 떠난다지?” 동 교수는 겸연쩍게 말했다. “라오후, 내가 해결을 못 한 채 떠나게 되었어. 어쨌든 지금까지 후지 아바오에서 돈 한 푼 받진 않았고, 이제까지 난 허탕을 친 셈이야.”

- (27) 有的同學問：“**聽說**你媽媽是我校的職工？”小夙沉着冷靜的回答：“是的，我媽媽是咱們學校的職工，這沒有什麼不好，我媽媽在後勤總務處工作，我們班領勞動用具一定很方便，這叫近水樓台先得月。”<sup>32)</sup>

어떤 학생이 물었다. “듣자니 너희 엄마는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며?” 샤오쑤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 학교 노동직원이셔. 이게 뭐 어떤데? 우리 엄마가 뒤쪽의 총무부에서 일하시니까 우리반이 근로 용품을 갖고 올 때 분명히 편리할 거야. 가까우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세상 이치거든.”

(27)의 예문에서도 '너네 엄마는 우리 학교에서 노동하는 사람이라며?'라는 질문에 샤오쑤는 예, 아니오라는 판정 의문문의 전형적 대답 이외의 담

31) CCL 【文件名:W當代W文學W大陸作家W李佩甫 羊的門.txt】

32) CCL 【文件名:W當代W網絡語料W網頁WC000020.txt】

화를 이어간다. 자신의 엄마가 노동자라는 것이 나쁠 것이 없으며, 일하는 곳은 어디이고, 우리반에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 구조적인 담화를 구성하였다.

## 5. 친교 - 인사하기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은 관심을 따뜻하게 표현하면서 인사를 하는 친교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8) 敲開門後，他笑容可掬地問：“小鄭，聽說你病了？”<sup>33)</sup>

문을 열고 나서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물었다. "샤오징, 듣자니 너 아프다며?"

(29) 有個叫邱江的男孩兒走過來打招呼：嗨，這不是寧寧嗎？聽說你結婚了？看上去就是不一樣啊，成熟。真成熟！<sup>34)</sup>

이름이 치우지양인 남자에게 걸어와선 인사를 했다. "우와, 이거 닐링 아니니? 듣자하니 너 결혼했다며? 딱 보니까 다르다, 어른 같아, 진짜 성숙해!"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울타리어 聽說-의문문은 인사를 할 때에 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만약 여기에서 울타리어 聽說를 삭제하게 되면 관심의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화자의 정서를 나타낼 수 없게 되며, 인사를 한다기보다는 정보를 확인하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래의 (28a)는 청자에게 관심을 갖는 화자의 인사 화행이지만, 울타리어가 삭제된 (28b)는 상대적으로 사실 확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8) a. “謝謝。聽說你老婆下個月生孩子？”<sup>35)</sup>

33) CCL 【文件名:W當代W電視電影W文藝W冬至.txt】

34) CCL 【文件名:W當代W網絡語料W網頁WC000022.txt】

감사해요. 듣자니 부인 분께서 다음달에 출산하신다면서요?

b. “謝謝。你老婆下個月生孩子?”

감사해요. 부인 분께서 다음달에 출산하시나요?

## Ⅵ. 결론

올타리어 聽說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단순히 삽입어로만 보면, 삽입어의 일반적 특징에 따라 문장 내부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삭제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잘못 여기게 된다. 그러나 실제 코퍼스를 바탕으로 하여 계량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올타리어는 의문문의 유형 출현에 영향을 미쳤으며, 삭제할 경우 특수한 화용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타리어 聽說은 판단의문문에서는 문말어기조사의 출현을 금지하였고, 특지의문문이나 선택의문문, 정반의문문의 출현 또한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올타리어 聽說은 의문의 정도가 가장 낮은 상승 억양을 활용한 판단의문문과 부가성분을 사용하는 판단의문문과만 공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사적 현상은 올타리어 聽說의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화시 중심을 화자가 아닌 곳으로 정보를 타자화시켜 발화 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일종의 완화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켜 청자의 체면을 암시적 표현으로 보호하려는 소극적 공손성의 실현 방식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인사하기나 담화의 시작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계량적 연구방법론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기술되지 않은 언어 현상을 포착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올타리어와 어기조사가 기능

35) CCL 【文件名:W當代W報刊W作家文摘W1996W1996A.TXT 文章標題:蒼天在上(6)作者:陸天明】

상의 층들을 보일 때에 어떠한 분포를 갖게 되는지 계량적 방법으로 명시할 수 있었다. 또한 층들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어떠한 의문문 유형이 훨씬 더 선호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聽說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울타리어 據說, 據傳, 傳說, 相傳, 據報道, 據調查, 據記載, 說是까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연구 범위상의 한계점을 지닌다. 추후 울타리어의 화용론적 기제와 통사론적 현상과의 접면에 대한 연구를 확대 진행하여 한계점을 보충하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고재필,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정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62권, 2010.
- 노은주, 〈헤지 발화문의 의미: 외축과 함축〉, 《담화와인지》 제21권 제3호, 2014.
- 윤상희, 〈중국어 명령문의 공손화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17집, 2019.
- 이범열, 〈현대중국어 부가의문문의 화행 기능과 의사소통 효과〉, 《중국인문과학》 제73집, 2019.
- 이윤경, 〈중국어 부가의문문의 담화 기능에 대한 고찰〉, 《담화와인지》 제25권 제2호, 2018.
- 이찬규·노석영,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울타리 표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제21집, 2012.
- 임소정,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한 중국어 요청 화행의 유형 및 특징 분석 -관습적 간접 화행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64집, 2015.

- 주지연, 〈한국어 병렬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허성도,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서울: 사람과책, 2007.
- 陳妹金, 〈漢語與一些漢藏系語言疑問句疑問手段的類型共性〉, 《語言研究》第1期, 1993.
- 董娜, 〈模糊限制語的界定及分類〉,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第4期, 2003.
- 高曉芳, 張琴, 〈模糊限制語: 分類與應用〉, 《四川外語學院學報》18(5), 2002.
- 劉月華, 潘文娛, 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2001.
- 李櫻, 《語用研究與華語教學》, 新北: 正中書局股份有限公司, 2012. [박찬옥 역, 《중국어 화용론의 이해》, 경기도: 학고방, 2019.]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99.
- 詹衛東, 郭銳, 馮貽榮,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CCL語料庫(規模: 7億字; 時間: 公元前11世紀-當代), 網址: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2013.
- 王玲, 〈模糊限制語在訪談節目中的應用及語用功能研究〉, 暨南大學漢語國際教育碩士學位論文, 2016.
- 徐傑·張林林, 〈疑問程度和疑問句式〉, 《江西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第2期, 1985.
- 邵敬敏, 《現代漢語疑問句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 邵敬敏, 〈疑問句的結構類型與反問句的轉化關係研究〉, 《漢語學習》第2期, 2013.
- 周紅, 錢紀芳, 〈模糊限制語——表達禮貌的語言策略〉, 《外語教學理論與實踐》第2期, 2018.
- 周瑞琪, 〈模糊限制語間接性的語用分析〉, 《山東外語教學》第3期, 2001.
- Brown, P., & Levinson, S.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Fraser, B. "Hedged performatives".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 (Vol. 3, pp.187-210).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75).
- Fraser, B. "Conversational mitigation". *Journal of pragmatics*, 4(4), (1980).
-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 vol. 3. (pp.41-58). Academic Press, (1975).
- Huang, Y.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이혜운 역 《화용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09.]
- Itani, R. *Semantics and pragmatics of hedges in English and Japanese*. Tokyo: Hituzi Syobo. 1996.
- Lakoff, G.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In P. M. Peranteau, J. N. Levi & G. C. Phares (Eds.), *Papers from the Eigh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183-228), Chicago, IL: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3).
- Leech, G. N.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NY: Longman. 1983.
- Prince, E. F., Frader, J., & Bosk, C.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 8(1), (1982)
- Sadock, J. M. *Toward a linguistic theory of speech acts*.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74.
- Searle, J. R. "What is an intentional state?". *Mind*, 88(349), (1979).
- Ullian, R.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rogative Systems".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No. 1. 1969.

###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pragmatic constraints on co-occurrence between the attribution shield hedge “tingshuo” and the interrogative type in Modern Chinese. Based on CCL corpus analysi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hedge “tingshuo” only co-occur with the yes/no interrogatives with rising intonation and the tag question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mitigation strategy to produce conversational implicature by moving deictic center. It was also related to the indirect speech act to protect hearer's face by weakening the illocutionary force. Moreover, the hedge “tingshuo” in interrogatives plays an important role to start a conversation and to socialize with people. Lastly, the hedge “tingshuo” can function as an indicator of the degree of questioning. These results differ from the existing viewpoint of conventional structural linguistics, which call for more research in syntax-pragmatics interface.

Key Words : 울타리어(hedge), 의문문 유형(interrogative type), 협력 원리(principle of cooperation), 화시 중심(deictic center), 완화(mitigation),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 체면위협행위(face threatening act), 소극적 공손성(negative politeness).